



**4** 양 배울터 총학생회 선거 후보들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내년 의대를 졸업하고 나감 후보자들의 당선 포부를 계획해 소개합니다.  
또, 설문조사 통해 학생회에 대한 기대와 원들의 생각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5** 사기 기리  
방이 뚫린 배를 골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6** 7차 재단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구성원들이 상이한 입장을 발표할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기 위한 미지향의 출구를 지키는 것이란데...  
당신의 입장을 세우는 원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8** 새 의뢰와  
음용 물이러들이 최대 최두인 동아리실내 조사를 들어다왔습니다.

**10** 유권리에는 연구하지 않는 연구소가 절반이 넘는다는데...  
각종 지원금은 다 어디로 쓰이는 걸까요?  
각종 취사를 통해 연구소의 할로로 모색해보겠습니다.

**11** 10월 11일 일하고도 졸음은 4시간 정도 노동자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 후임 재단이사 구성 관련 입장 분분

변이사장, 양배움터 총학·교수협의회·직원노조와 면담

학내 구성원들이 후임 이사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표하지 못한 채, 현 관선이사진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한편, 변형은 재단 이사장은 지난 주 후임 이사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양 배움터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노동조합의 대표들을 불러 개별적으로 공식면담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변 이사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후임 이사진 결정에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 배움터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를 통해 최대한 기본 입장을 대안 자료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재단이사회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후임 이사진 구성을 논의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재단 사무처장 김원석(언어학)교수는 "현 이사화나 교육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이

다. 하지만, 민료원이 다가물수록 후임 이사진 검토를 위해 한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단 사무처에 따르면 후임 이사진 결정은 애초 조규철 총장이 언급했던 11월 말 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견된 10여 개 대학의 관선이사진이 올초에 모두 교체되는 데 관할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일괄적으로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다.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선거에 돌입해 분주한 준비이지만 선거운동기간에도 김씨 총친회 회장 재단 이사진 참여 반대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며칠째 교육부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36대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자들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 부총학생회장은 "선거운동기간에도 늦추지 않고, 후보자 합동 결의문이나 유세 등을 통해 '김씨 총친회 반대' 입장을 계속 거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각 구성원들의 입장은 김씨총친회(선택)과 김총배 박사가 만들고 현 건설본부장 김중국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재단 이사진 참여에 대한 찬반으로 양분해 있다.

양 배움터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결의하기 지난 달 김씨총친회의 이사진 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반해 우리 학교 노동조합, 재직동문교수회는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고 이사진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밝힌 변형만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배움터 선거 돌입

## 서울, 단대선거 진행·용인, 총학 후보자 등록

36대 총학생회선거에 임철나(사회·신문방송 98)·김재동(사법·영어교육 99)조와 김재현(사상·러시아어 99)·김경진(중앙·베트남어 98)조가 후보로 등록했다. 또, 후보가 몰려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내주 초거기 반격적인 선거문제가 돌입한다.

투표일은 오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3일간이며 13일(화) 5시 불은광장에서 합동유세, 15일(목) 정전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열정나·김재동조는 선거 라플렛 도수 규정을 위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로부터 경고령을 받았다.

단과대학 선거에도 대부분 후보등록이 마감됐다. 중앙대에는 오는 14, 15일(목) 투표를 진행하며, 김재동(중국어 98)만이 단독 입후보했다. 같은 날 투표하는 사법대 선거는 나숙진(한국어교육 99)만이 후보로 등록했다.

사회대는 조희정(행정 99)만이 단독 입후보했다. 투표는 15, 16일(금) 양일간 진행된다. 유일하게 경선으로 치러지는 사법대 선거에는

오승연(사법영어 99)·김정숙(영어 98)조와 백종호(네덜란드어 00)·조계갑(스페인어 99)조가 각각 입후보했다. 이화준(노국어·경의 99)과 고승선(우리말연구·한국어교육 00)만이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각각 정, 부 후보로 등록했다. 투표일은 14일(수)이다. 법대와 상경대는 오는 15일(화) 후보등록을 마감한다.

**용인** 지난 9일(금) 총학생회선거등록 마감 해, 윤상필(통유럽·헝가리어 99)과 유하나(통학·미국어 98)만이 71명의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투표는 오는 27일(화)부터 29일(목) 6시까지 각 건물 1층에서 진행되며 40% 이상의 투표를 가운데 50% 이상의 찬성표를 받을 경우 당선된다.

한편, 27, 28일 양일간 치뤄질 자연대 선거에는 김경진(화학 07)만이, 생활협동조합에는 신승훈(자연·환경 96)·정유리(사법류·영어 01)조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다른 단대에서는 아직 선거일정공고도 나지 않았다.

선거속보란	
중앙대	14일, 15일(목)
강릉총(중국어 98) 단독 입후보	
서경대	20일, 21일(수)
이화준(노국어·경의 99)	
고승선(우리말연구·한국어교육 00)	
사법대	14일, 15일(목)
나숙진(한국어교육 99)	
사회대	15일, 16일(금)
조희정(행정 99)	
동아리 연합회	14일(수)
오승연(사법영어 99)	
김정숙(영어 98)	
백종호(네덜란드어 00)	
조계갑(스페인어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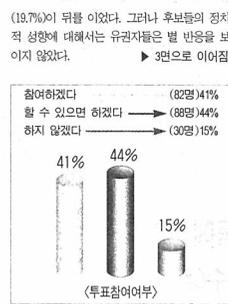


민주적인 의대를 위해 김씨 총친회 재단 진입 반대 1인 시위가 교육부 앞에서 1일(목)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민교수(사법·영어교육 98) "36년도에 박승준 재단을 몰아냈는데 별 일없이 김씨 총친회가 들어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부

## 본교생 84.6% '선거 참여 하겠다'

본교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함께 지난 7, 8일(금) 양 배움터 학생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전국 학생선거 관련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4.6%가 '2002년 학생의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들도 '기회가 닿으면 하겠다'는 의견이(44%) '하겠다'는 당위적 의견(40%)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 200명 중 30명만 이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결과는 학내법, 단과대학, 배움터별로 유사한 결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후보자의 품성 및 노력하는 자세'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제기되는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여부'(25.4%), '현 학생운동 및 대학현안에 대한 계획과 공약'



## 10일(토) 전국교수노조 출범

지난 10일 '교수도 노동자'임을 선언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총 100여명의 교수가 가입한 가운데 추진된 지 1년만에 지난 10일(토)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다.

100여명의 교수가 참석한 이날, 출범식 이전에 대의원대회를 거쳐 김영과 규약,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임원선출을 진행했는데 투표 결과 위원은 황상기 교수(서울대), 부위원장은 박거용 교수(성명대), 유세호 교수(전북대)·이종구 교수(경문대)가 각각 선출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상기 교수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엄청난 우리의 대학현실을 직시하며 진정한 대학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교수노조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부위원장 박거용 교수도 "대 학민주주의를 앞장서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교수노조가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출범식이 이어졌는데 영남대 상영, 임원 인사, 출범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교수노조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주적 대학운영 구조의 확립, 대학자치와 학문자유 의 구현,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교수신분의 보장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고등교육 개혁의 큰 화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 총·학장에 보낸 「교수노조 관련 협조공문」을 규정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교육부는 시대적으로 중무관망과 사법외법적 상의 처벌규정을 틀어 서슴없는 교수 탄압을 중용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집단적기구가 아니라 대학의 총직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반민주적·반사법적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는 교수노조 건설을 축하하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학생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재야단체가 참석해 축하를 불렀다. 통일문제연구소 박기환 소장은 "역사적으로 큰 한국인 지 금 교수노조가 새로운 기록에 될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교수노조는 앞으로 주위 강화와 확대, 합법화, 비공식 사업에 조직적 대응한다. 이뿐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 증대, 교육부 연구, 계약제·연봉제에 문제점 등의 대학개혁 정책사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 자키 밥그릇 챙겨먹기

밥 안 챙겨먹고 배고프다고 떼 쓸겁니까? 투표안하고 불평만 늘어놓 겁니까? 권리는 찾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투표합시다.

총학생회 선거일시

- 서울 배움터 : 11월 20일(화)~22일(목)
- 용인 배움터 : 11월 27일(화)~29일(목)

민중자주연론 오디학보

## 그들이 나설 때

▲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한 달째 밥을 굶어지며 식반을 해가면서 농성 현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 교수의 눈물 섞인 외침을 기억한다. 지난 5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전하며 흘렸던 그의 눈물은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을 악간은 의미하게 했다. 교수가 직접 투쟁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낯설음 때문이었다.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교수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은 개혁적이라기 보다 현실 순응적인 면모를 더 많이 보여왔다. 사족을 빼고 말한다면 교수도 노동자다. 머리를 쓰는 것과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를 뿐 이 평의 불우 복과 노동자들과는 다른 '신성한 계급'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도 권리를 주장할 항구, 사회개혁에 목소리를 낼 책임 등이 존재한다.

▲우물 웃음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때만이 가치가 있다고 본다. 작가 조세희 선생은 그랬다. "민주 속에서 나온 학자가 그들이 갈 때만이 세상은 변화한다"고.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의 우리 교육 현실은 '다만 5년전'이다. 그래서 더욱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교수노조가 필요하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아직은 출범 단계라 교수노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한계점이 뚜렷한 사립학교법에 기존에 교수노조를 단입해 주는 안이다. 더불어 교수노조가 교수노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민선시대와 관계없는 별다른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 현안에서다.

# 서풍연 사건, 공간문제 다시금 대두돼

## 원교수 사과문 발표 · 대학당국 공간 마련 대책 미흡

원교수 사과문 발표

원교수는 학내개시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원교수는 판결을 시간 이유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서풍연 학생들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호통과 지극히 피해를 본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지. 한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그 학생이 인격적인 상처를 받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연옥장은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닌 서풍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풍연 차원에서 대응을 내겠다"며, "학생들 사이에서조차도 서풍연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 아깝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교수는 학내개시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원교수는 판결을 시간 이유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서풍연 학생들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호통과 지극히 피해를 본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지. 한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그 학생이 인격적인 상처를 받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연옥장은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닌 서풍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풍연 차원에서 대응을 내겠다"며, "학생들 사이에서조차도 서풍연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 아깝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학원자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윤상범(동유럽·항기어 95)군은 "원인은 소송문제, 공간문제이지만 본질은 한 개인의 인격이 교수라는 권위에 짓밟힌 것"이라며, "수입금, 지적권 논쟁은 소도적인 것이며 근본적 해결방법은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에 있다. 서풍연 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리에게 하루 빨리 안정된 연습실이 건설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풍연실은 작년 3월 기건물이었으나 철거되었고 서풍연 학생들은 2학기까지 서범운동과 일일캠프, 대치보, 교양인 일 집회 등을 통하여 의로운 투쟁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의 서풍연실은 참고로 쓰인 곳으로 방음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40여 명의 학생들 이 다 모이기에 좁은 공간이다.

대학당국은 올해 초 32개 학회의 하나로 후복관 지하를 개조, 연습실을 만들자는 제안

에 따라 원인이 구조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변경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리고 1년 전 빌딩 기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던 원인사후에 1년 만인 올해에는 기건물 허가를 양성화시켰다고 한다. 이에 서풍연은 연습실을 이전할 위치로 여론광 필 수 밀착하여 기건물을 지어줄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당국에서 대응동장 기건물 또는 노천극장 지하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학당국이 서풍연은 말 그대로 '사유재산' 통제 권한으로 동아리 보다는 대학의 성격이 강하고 노천극장 밑에는 이미 로그아웃(Log out)하는 동아리가 지리 않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내놓은 방안이다. 안정된 연습실이 건설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으나 학교당국은 인내력의 이중생활 처. 서풍연의 병행할 철저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민희 기자 miksophia@hanmail.net

#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회 장애인영화제 지원봉사자 정진석(성명공백과 약칭만 줄)씨를 만나

그가 영화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화를 상영할 극장을 찾는 일이었다. "장애인 전용극장은 고사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없는 곳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영화제가 열린 아트센터의 시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제를 치러내면서 정진석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제인 만큼 창작장애인을 위해서는 골도보정기(귀를 통하지 않고 소리를 뇌로 직접 연결하여 음향을 느낄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가 제공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사와 장설명의 성우의 목소리도 제공되었다. 그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좋은 반응을 얻었고 비장애인에게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인기가 많았다"라며 호감을 표했다. 상영된 영화 중 지적 장애와 관련된 영화를 갖고 있는 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그린 일명 애니메이션 '도토리'의 집이 큰 반응을 얻었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라며 좋아했다. 올해에는 전년과 다르게 '경복궁'이라는 판 프로그래밍도 있었는데 그는 아직 작품들의 장애인 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점차로 주어진 "좁은 공간"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림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장애인과 함께 하고 싶다"며 자신의 포부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권정우 기자 tingn@hanmail.net

# 교직원 퇴직금 제도, 문제제기 지속될 듯

△정당 = 1984년을 기점으로 퇴직금제도가 사라지고,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연금제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재정을 핑계로 그 당시 정산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 교수, 직원으로 구성된 재우위원 회가 2002년 퇴직금이 정리될 때까지 퇴직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2001년 2월 말로 동결처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이사회는 의결로 42억원의 퇴직 적립금 포함 50억 이상이 퇴직금 1차분으로 지급했다. 앞으로 200여원 정도가 추가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제기 = 17년전 퇴직금 전액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일부 구성원들이 주장하였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 기득권 불가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17년전부터 운영해 퇴직금을 받은 교직원들과 현재 지급대상인 교직원들과의 형평성

을 이유로 제기함.

△정당 = 학교측이 유권해석하는 부분이 잘 대적이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최근 여러 학과가 들어간다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경향을 내었다.

또한, 중앙대의 경우는 17년전의 퇴직금이 이지만 불어 지급한 경우도.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연기부분은 규정된 바가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선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원교수 사과문 발표

# 서울배움터 각 과 선거 일정표

선거구명	선거일	후보자 등록마감	투표일
영어과	20일(화)	후보자 등록마감	28일, 29일(목) 투표
독일어과	14일(수)	후보자 등록마감	23일(금) 투표
서반어과	이예승(00) · 한은희(01) 입후보		21일, 22일(목) 투표
포르투갈어과	13일(화)	후보자 등록마감	21일(수) 선거
네덜란드어과	14일(수)	후보자 등록마감	21일(수) 선거
노어과	20일(화)	후보자 등록마감	28일, 29일(목) 투표
중국어과	22일(목)	후보자 등록마감	30일(금) 선거

# 대학원 총동문회 · 재직동문 교수회 학부생 · 대학원생에 장학금 지급

**<총동문회 장학금>**  
대학원 총동문회에서 지난 10월31일 2001년도 2학기 장학금 500만원을 상주수대대학원생 5명에게 1백만원씩 지급하였다.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다.

영어영문과 박사과정 송현준, 독어독문과 석사과정 이혜경, 법학과 박사과정 허동원, 정보기록 석사과정 박유진, 통계학 박사과정 이진희

**<재직동문교수회 장학금>**  
재직동문교수회에서 장학금을 설립하여 11월 중순 장학금을 선별한다. 기금은 올해 초 정년퇴직할 독일어과 김교수, 교수가 후배들의 면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천만원을 기탁하면서 설립되었다. 이번 학기의 장학금은 배움터 별로 1인을 선별하여, 각 학과민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일반대학원, 김재철씨 등에 경영학 명예 박사 학위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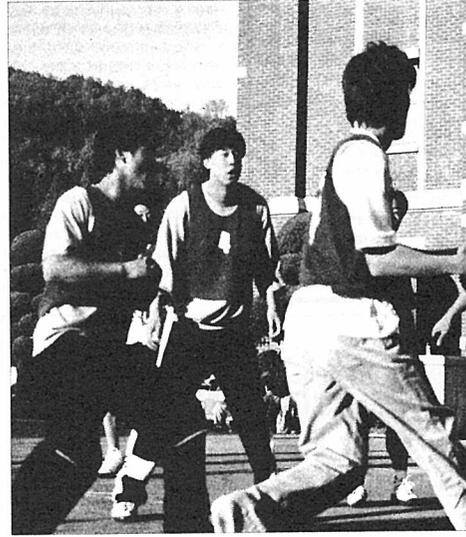
대학원은 지난 10월 25일(목) 김재철 한국무연철학 회장, 이흥태 삼보컴퓨터 회장, 이태환 다우기술 회장에 경영학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서울배움터 국제관 예경홀에서 열린 이번 명예 박사 수여식은 총장을 비롯해, 수상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물류와

# 용인배움터, 인하병원과 함께 학생 · 교수 · 교직원 대상 건강진료 실시

인하병원 내과 전문의가 용인배움터에 파견되어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진료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후 복관 2층 학생보건의실에서 실시되며 용인배움터 재학생, 교수, 직원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우리대학과 인하병원간에 체결한 의료지원 양서지에 의한 것으로, 학교측이 올해 초 총학생회와의 합의하에 학자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말야!!!

정신기술제정 이 10월 29일(월)부터 이번 8월(목)까지 2주간 용인배움터 곳곳에서 농구,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의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요양선까지 약 250여명이 뛰는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재학생들 우습은 디지털정보학과가 차지했다.

#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 명예박사학위 수여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에 대한 명예 박사 수여식이 오는 16일(금) 오후 4시 반 서울배움터 국제관 예경홀에서 열린다. 대학원장 김지수(법학)교수는 "88년 공산당 서기장 재직 중 당시 소련의 정치 및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정책(페레스트로이카) 추진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점, 지구의 환경보존과 동서 냉전 종식에 앞장선 점이 이번 고르바초프의 명예 박사학위 수여 사유"라고 밝혔다. 한편, 학위 수여식 이전에 약 20분 분량 조규홍 총장과 고르바초프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 2001 교수 테니스 대회 열려

2001년 교수 테니스회장의 테니스 대회'가 지난 3일(토) 용인배움터에서 각각 열렸다. 체력단련과 상호간의 우의증진을 위해 열린 이 행사는 이영규(중국어)회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회원 교수가 참여했다. 복식경기만 치러진 이번 대회는 A조와 B조로 나뉘어, 하원준(화학)과 B조에 김자석(법학) 교수가, 문재욱(산림정보 시스템공학)조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요일	이름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연
월	소고(불고기)와밥 (W1,000)	오징어(참치)와밥 (W1,300)	카레(해물)와밥 (W1,600)	비빔국수(계) (W1,400)	닭고기와밥 (W1,500)	간짜리국수 (W1,000)
화	순두부찌개 (W1,200)	김치찌개 (W1,200)	불고기(와) (W1,500)	튀김(와) (W1,500)	항시(와) (W1,500)	(W1,200)
수	생선(와) (W1,000)	소고기(와) (W1,500)	해물(와) (W1,500)	얼얼(와) (W1,500)	삼겹(와) (W1,500)	우동 (W1,000)
목	오징어(참치) (W1,400)	삼겹(와) (W1,500)	오징어(참치) (W1,500)	불고기(와) (W1,400)	부대찌개 (W1,500)	비빔국수 (W1,200)
금	육개장 (W1,500)	해물(와) (W1,500)	해물(와) (W1,500)	두부(와) (W1,300)	소고기(와) (W1,500)	김밥 (W1,000)

# 용인배움터

구분	어 문 관			후 복 관		
요일	종식 1	종식 2	분식	볶음밥	달걀/양식	탕
월	오징어(참치) (W1,500)	순두부찌개 (W1,800)	간짜리국수 (W1,000)	스크림(와) (W2,500)	해물(와) (W1,800)	해물(와) (W1,800)
화	소고기(와) (W1,500)	비빔국수 (W1,000)	아메(와) (W1,500)	햄(와) (W2,000)	생선(와) (W1,800)	
수	김치(와) (W1,800)	반찬 (W1,800)	수제(와) (W1,800)	참치(와) (W1,800)	비빔(와) (W1,800)	부대찌개 (W1,800)
목	고추(와) (W1,500)	튀김(와) (W1,800)	튀김(와) (W1,800)	햄(와) (W1,800)	비빔(와) (W2,000)	비빔(와) (W1,800)
금	김치(와) (W1,500)	200년 (W1,800)	튀김(와) (W1,800)	맛(와) (W1,500)	김(와) (W1,800)	간짜리 (W1,800)

# 만리행 발표회

중국어과 소도인 만리행이 자건여행에 관한 발표회를 지난 10월 29일(월) 용인배움터에서, 31일(수) 서울배움터에서 각각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지난 여름, 만리행이 40일간 중경에서 상해까지의 3000km를 여행한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 필름과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상영됐다.

만리행 회장 정창현(동양·중국어 95)군은 "만리행이 어려웠으나 외국학 연구센터 영성실의 도움으로 쉽게 끝낼 수 있었다"며 "합동했지만 많은 학생들의 감동했다는 말에 보람을 느꼈다. 내년 한중교 10주년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주일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로 한국 문화의 이해에 기여한 점 △한독친선 협회의 회장직 수행 등을 이유로 이번 수상자에 선정되는데 양해 있었다.

# 양 배움터 총학생회선거 후보자 지면 인터뷰

서양배움터



기호 1번 임정나, 김세영

**선거본부의 기치와 내용설명**  
 "기호 1번의 기치는 '민만치 않은 세상, 통일 조국으로 돌고라. 그대! 열렬정진'입니다."  
 참으로 민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반세기 일한 미군 부시 앞에 합일이 무르거나 들어주요. 적반하장 다시 우리 할 남보들 일본들 앞애 큰소리 한번 못치는 현실, 구 제당이 외래를 사유할 용모를 켈고 학교 문란이 장소로나 이용하려는 이 현실에서 학생회는 '뜨거운 피, 푸른나'이 인 우리들을 위해, 존중 받아야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요정책 설명**  
 30대 열렬정진 자주적 총학생회는 과제서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학생의 주인으로, 한반도의 주인으로 서는데서 존중받아야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촛대를 지켜나가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적 총학생회에서 모든 사업의 기초는 '학우중심' 사상입니다. 저희의 핵심 공약은 등록금 2% 인상분 돌려주기, 교양 커리큘럼 확충, 객관적 강의 평가제 실시, 학회 소모임 확충을 통한 학회·소모임 강화, 수강 신청대안 해결, (수호헌사) 총학생회가 되어 과학생회 발전특별위원회로 과학생회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는**  
 모든 것의 대안 자신감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막아나서는 모든 것과 뜻있게 싸워 나갈 결심입니다.



기호 2번, 김계연, 김광수

**선거본부의 기치와 내용설명**  
 "다른 미래를 바라는 자, 다른 미래를 준비하라."  
 취업대란, 연일 늘어나는 노숙자, 한반도의 전쟁위기... 하지만 오늘과 다른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와 자기문제만 바본 줄 알았던 외대학우들이 김세영총학생회에 맞서 도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인태 조선포면, 민태형, 기형용이러들... 우리 안에서서의 진보적인 움직임들은 벌써 학우들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총학생회는 다른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학우들과 함께 다른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설명**  
 학생운동의 단결과 혁신, 정파운동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운동을 극복해 단결과 연대의 원칙을 갖고 내년도 학생운동을 비바랍니다. 21세기학과 믿음의 새정치, 민주노동당 외대학생위원회 건설, 소식지 발행, 정치활동보고회, 기획학연회 등 운동과 학우들과 함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는**  
 "기호 1번, 2번 다른점이 없는데 왜 같이 나오지 않겠나?" 학생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추환을 받으며 많은 학우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더욱 더 7300외대학우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거기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헌명, 헌명 알감마주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배움터



윤성필, 유예니

**선거본부기초에 대한 설명**  
 "우리를 삼는 사람들"  
 우리는 나무를 삼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모두가 패하고 떠나 버린 땅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묵묵히 나무를 삼는 사람들. 그 나무들이 숲이 되어 다시 사람들이 숲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날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본부의 주요 공약과 실행할 설명**  
 첫째, 외대와 학생의 발전은 민주적인 재단 선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중앙 선출은 외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둘째, 한국의 모든 대학과 교육단체들과 연대하여 2002년 등록금인상과 사립학교법 개정,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 셋째,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실업과 대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보정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과학생회발전특별위원회의 건설을 통해 과학생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의 생활문화 운동을 통해 진보가 숨겨져 학단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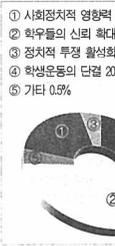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회의 존재의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학생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버거운 듯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말이 틀렸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 학생회선거 관련 설문조사 ▶ 1편에서 이어짐

최근 2년 간 서양배움터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를 마칠로 투표기반을 연강하는 등 투표를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들은 '유망한 선거운동'이 필요함을 지적(38.9%)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중부한 공약실현'(17.4%), '선거토론'(17.4%) 등의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참신한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현재 전에서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선거운동, 유권자 운동 등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생회 - "확대사업 충실했으면..."

학생회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은 응답자의 약 70%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내년 학생회에 바라는 사업으로 '복지개선, 등록금 투쟁' 등 학원



회 사업 중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8%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학생회 활성화가 미진한 구실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학생총회 참식자, 과방 이용자 등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설문결과도 있다. 학생회에 의견개진 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인터넷 이용이 69%를 넘었으나 반면에 학생들이 학생회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만남(학생총회 8.4%, 학생회 방문 4%)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적었다. 이는 위에서 학생들이 학생회의 의견수렴 정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처럼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개진 방법에 맞는 활동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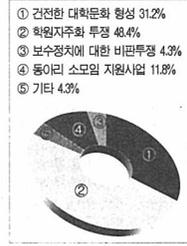
### 학생운동 - "신뢰감 회복이 가장 시급"

응답자들은 한국학생운동에서 해결해

야할 과제로 '학우들에게 신뢰회대'(30.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학생운동이 인기 있는 다른 정치적 과제인 사회 정치적 영향력 확대(29%), 학생운동의 단결(20.8%)보다 높았으나 큰 수치이다. 학생운동에 대한 신뢰도도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는 반응(51.8%)이 가장 높아 학생들이 위와 과제를 사급히 해결해야 함을 증명했다.

하지만, 학생운동의 필요성만은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데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30.7%),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학생운동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므로'(23.8%), '대학의 순수성과 진보성을 확대하기 위해'(22.2%) 등을 들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학생운동의 대표단



## 사설

### 후임이사진 합의를 위한 원칙

후임 이사진 논의가 시작되고 난 후 구성원들의 의견의 중심에는 '김종국 씨와 김재중 씨'가 있었다. 이를 전성하는 구성원들은 구성원대로, 반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대로 인터넷상에서, 또 대자보를 통해 공방을 펼쳤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견이 모이지 못하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깊이있게 고민하지 못함때에 근거한다.

친척에 의한 일족의 지배는 대학의 공공성을 해치는 장본인임을 사립대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조선대 박철용, 신상대 김민기'로 대표되는 궤변체제의 전횡은 자기사립(특히 친척의 관계)남기로 표출했다. 이는 세종대, 단국대, 경원대, 한성대 등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어왔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143개 대학 중 57 곳, 전체 이사 총 수 527명 중 135명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으며, 73개 대학 중 195명의 친인척이 직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과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낸다. 김세영총학생회 재단 이사로 들어올 경우 외에는 일족에 의한 대결형 경영을 받게 될 것이다.

김세영총학생회 후임 이사진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전 이사장이 사립사자 때문에 학사의 부인인 이숙영씨가 여러 차례의 편지를 통해 대립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98년 비리의 부정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의 강한 반대때문에 밀려 결국에는 자격을 박탈당한 분이 아니었던가? 서양배움터 총학생회가 밀려나기를 통해 지른 결과는 어떤 결과도 이를 확증시켜주고 있다. 지른 결과는 '이숙영씨'는 이미 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자였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진 선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숙영씨로부터 사립사의 유지를 받드는 권한은 선산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할 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대의 마지막 이유는 김종국씨 또는 김세영총학생회 갖고 있는 비민주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본보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김종국씨는 인터뷰 자리에서 '교수를 사이에 계속 싸움을 일으킨다는 이는 교수협의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외대의 소유권을 두고 자신의 동생과 '너 해라'라는 말을 주고받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학내 교수들의 대표기관인 교수협의회를 교수들간 분쟁의 소지로 삼는 것은 학내 민주주의 대의체제 그 기본틀을 인식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대학을 '소유'는 개념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궤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김세영총학생회 재단과는 분명한 원칙으로 토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정도군 <3> 정현도

<p>광천은 총의 생명입니다.</p>	<p>재단과 학교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p>
<p>이런 선거는 바로 우리의 정전입니다.</p>	<p>은빛 탄환과 같은 힘은</p>

## 공동체문화 살리기 기획광고

# 우리... 같이 할래요?



꽃잎이 떨어져버린 꽃은 초라하기 마련입니다. 꽃잎이 모두 모였을 때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 할 때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학 속에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떨어져버린 꽃잎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당신은 우리대학의 주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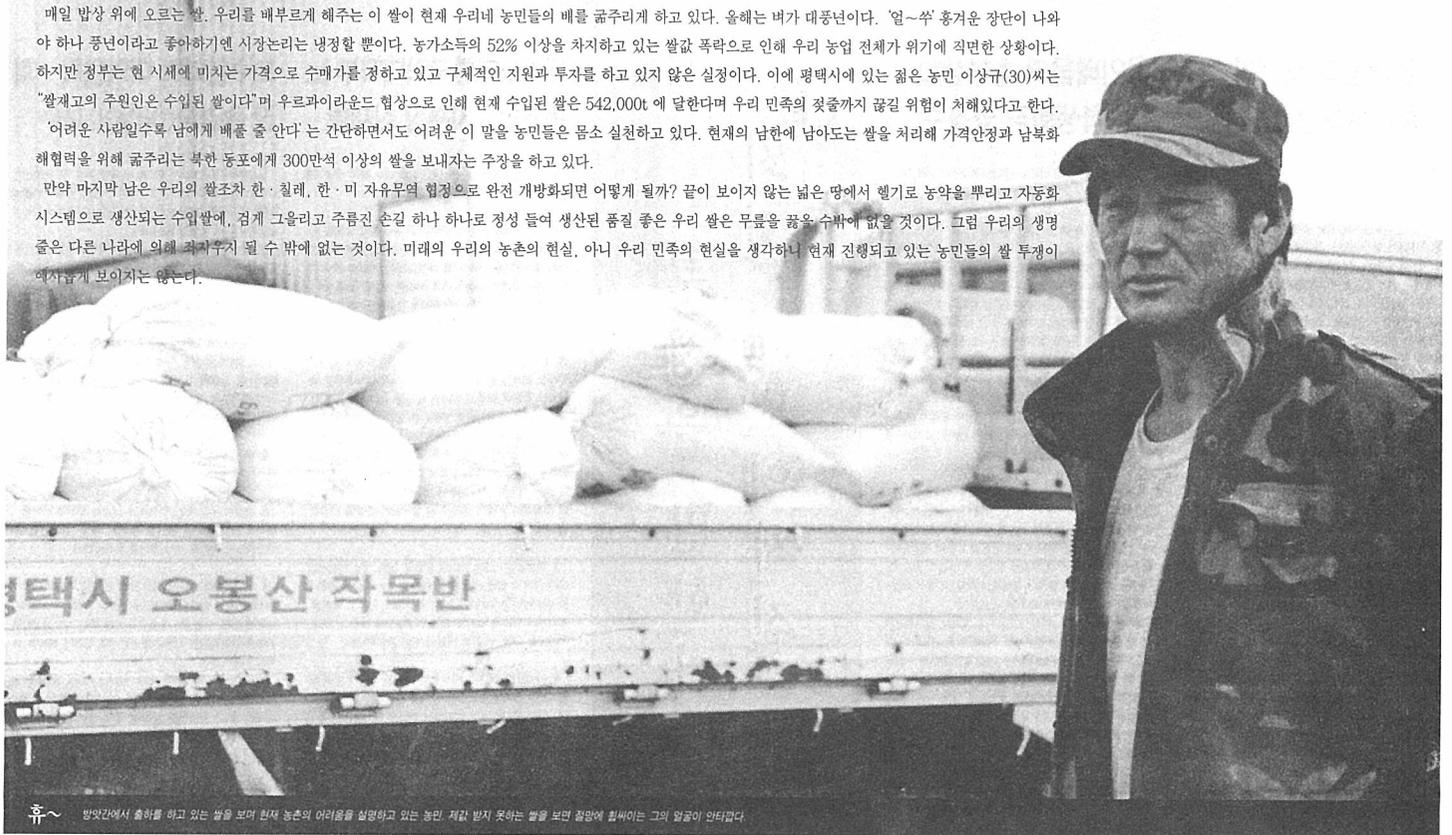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민족의 자존심 '쌀' 어쩔거나

매일 밥상 위에 오르는 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이 쌀이 현재 우리네 농민들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있다. 올해는 벼가 대풍년이다. '얼-쭉' 흥겨운 장단이 나와 하나 풍년이라고 좋아하기엔 냉정할 뿐이다. 농가소득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값 폭락으로 인해 우리 농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 시세에 미치는 가격으로 수매가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에 있는 젊은 농민 이상규(30)씨는 "쌀값의 주원인은 수입인 쌀이다"며 우르파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현재 수입된 쌀은 542,000t에 달한다며 우리 민족의 쌀줄까지 끊길 위험이 처해있다고 한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배줄 줄 안다"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이 말을 농민들은 몸소 실천하고 있다. 현재의 남한에 남아도는 쌀을 처리해 가격안정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300만석 이상의 쌀을 보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마지막 남은 우리의 쌀조차 한·칠레,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완전 개방화되면 어떻게 될까?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에서 헨기로 농약을 뿌리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수입쌀에,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손길 하나 하나로 정성 들여 생산된 품질 좋은 우리 쌀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의 생명줄은 다른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의 우리의 농촌의 현실, 아니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민들의 쌀 투쟁이 역사롭게 보이지는 않는다.



휴~ 평택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 쌀을 보며 현재 농촌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농민. 제값 받지 못하는 쌀을 보면 절망에 휩싸이는 그의 얼굴이 안타깝다.



평택에서 농사 짓는 김민수(36)씨를 만나

### 쌀값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

전체수익에서 10~15% 감소한 수준이다. 한가 마니당 민원에서 민오천원 정도 하락해 농사지 어왔자 남는 게 없다. 일을 일대로 하고 농약 은 농약 값대로 들어간 상태인데 걱정이다. 정부는 원시적으로 수매가를 정해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여서 쌀값이 폭락을 하고 있다.

###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농사지어봤자 미래가 없다는 한숨소리만 들린다.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농사일이 천직이기에 희망이 없더라도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 농사지으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힘든 것을 모른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몸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힘들려 일한 노련의 대가가 없어 더 힘이 빠진다. 또한 매년 농사를 지어왔자 가격 보장이 없기에 불안하기만 하고 더욱 농작물 선택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앞으로 바라는 점은

정부는 내가 갖게주고 능력이 없어서 인된다며 책임을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구조 조정이나 다른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농촌에 대한 무지와 지원에는 인색하다. 정부 관계자들이 농촌에 직접 와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제로 느꼈으면 좋겠다.



같이열린 농심

지난 달 총합 전산에서 정부의 쌀값정책에 실망한 농민이 많아 모든 논의 모습이다. 수확을 해왔자 인건비가 더 들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추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쌀값폭락에 반해서 농약을 먹고 죽는 농민의 실정이 이렇길까. 더이상 갈아엎을 논의 생기지 않게 정부의 시급한 농업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 쌀값에 대한 시가수매, 시가방출 철회하라 전국농민희총연맹 전북도연맹

"정당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 미국과 칠레를 상대로 싸워라." 버기마를 들고 청와대 앞에서 쌀을 뿌릴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오늘도 아스팔트(시위) 농사를 짓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철의 차가운 발길질이다.



### 세계에서 가장 큰 쌀제이

한해 농사를 짓느라 고생한 농민들을 위로하고 쌀소비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 2001년 되는 쌀제이를 만들었다. 쌀을 이용한 이런 색다른 음식이나 시도기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수확을 하지도 않은 농작물이 평택시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썩어가고 있다. 배만이 아니라 배주역시 우리네 농민들의 마음을 썩게 하고 있다.



6·7 2001년 11월 13일 795호

## 주제 기획

### 서울배움터 학생회 - 총학생회장 이승주

1. 첫째 정리하면 '재단 경영'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99년 우리는 친목집단의 전횡이 얼마나 와태의 미래를 심각했는지 확인했다. 99년 와태 재구조화의 핵심으로 우리는 전 이숙경 이사장을 포함한 구재단 인사들을 모두 와태에서 몰아내었다. 그런데 이숙경의 편지 한 장으로 자신이 와태의 주인으로 돌아왔다는 김씨 종친회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후임 재단은 이제 설립자의 친족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제 와태를 누군가가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재단을 경영하자해야 한다.

2. 교수협의회 선선님들은 이미 김씨 종친회의 재단 진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옮겼기에 표명할 바가 있다. 아직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시고 있으며, 향후 재단이 교육과 공익을 위한 재도로 사람으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3. 노조는 99년의 원칙을 이미 여러 차례 훼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김씨 종친회의 진압을 인정하는 것과 다른없는 입장으로 '원인책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한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99년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해서 경고하였으며 앞으로 신중한 발걸음을 옮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3. 직원노조에 묻고 싶다. 김씨종친회를 막는 것이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설립자의 친인척을 이사로 모셔야만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것의 뜻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 듣고 싶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투쟁은 학교를 소유하는 일' 쪽에 의해서 흔들려왔던 그 동안 사립학교의 병폐를 없애고자 하는 투쟁이라는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 종친회는 허형하면서 이 투쟁을 벌이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4. 그 자리에 계시 이사장께 드리는 글'과 '한겨레판고' 사본을 전달하였고, 그 동안 진행되어온 투쟁의 원칙, 즉 차기 이사장은 김중국, 김씨 종친회는 물론이고 이숙경, 박순준을 비롯한 구 재단 세력도 어떠한 관계도 없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위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을 시 끝까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표명했다.

5. 현재 총학생회는 교육부 1인 시위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교육부에 명확히 일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학내 선전을 통해 재단 투쟁의 주요한 실행방향을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선거기간으로 자못 학우들의 관심이 빛겨나갈 수도 있지만 재단 투쟁에 대한 의지와 결의는 비단 35대 총학생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 총학생회장 양경수

1. 현 사립학교법 학교는 설립(친목까지 포함)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씨 종친회가 다시 학교의 소유자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잘못된 법조항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립학교는 법인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사장을 구성하여 학교운영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학교 법인은 절대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은 학교법인을 처음 설립할 당시의 교육이념은 뒤로 한 채, 그 법인의 이사장이나 그 이사장을 구성하고 있는 친목들이 진정한 교육은 뒷전으로 삼습니다. 99년 재단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와태로부터 쫓겨나간 재단이 다시 김씨종친회라는 족벌의 이름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학교를 사유물로 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한 개인의 사유물일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재 구성원들(학원)의 3주체: 교직원, 교수, 학생)의 것입니다.

2. 먼저 현 재단문제에 관해 와태의 미래를 밝히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와태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새 세기에 맞는 와태의 발전방향을 그려야 중흥의대를 만들어 나갈 신탁과 자질을 갖추는 거라는 문헌에 있습니다. 관산이라는 일기가 많았으나 어쨌든 우리 대를 결정할 수 있는 문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김씨종친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김씨종친회와 와태의 주인이라는 말만으로 재단진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김씨종친회 구성원에게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문헌에 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일부세력의 정횡을 막을 수 있는 재도로 보정하는가 또 와태의 발전을 위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었는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김씨종친회'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적 논의와 검증이 우선되지 않고 일몰과 현재 그 누구도 '김씨종친회'라는 이름과 명분으로 재단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재단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파벌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연대할 수 없으며 단호히 배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4. 향후 우리의 계획은 재단문제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끝내 원상 학우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적, 중흥의대 건설을 위해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총학생회 및 단위 학생회 선거시기인 만큼 각 선거운동본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해 나갈 것임을 학생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원상학우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할 나날이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차기 재단이 사진다”

## 구성을 말한다

▷ 공동질문지

1. 후임 이사진수에 대한 기본 입장은
2. 다른 구성원과의 면담 여부와 내용
3. 차기 재단 구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타 구성원들에게 대한 질문과의 견
4. 이사장 공식 면담 내용
5. 차기 재단 이사진수 구성과 관련한 향후 계획

### 대학노조한국외대지부 노 동조합 - 지부장 심재형

1. 본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2. 교협 부회장(김성열 교수)과는 노동조합 입장을 밝힌 날(10월 16일) 면담을 거쳐,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협 부회장은 학내 구성원간의 의견이 다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대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23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학자후 위원장을 면담하여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 총학생회장은 차기 이사진수 구성에 있어 누구든지 참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씨종친회 측에서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서울 총학생회는 이 부채(누구든지 참여는 가능하다)에서 입장차이가 있지만 후후 대화를 가질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총장 선출에 대한 참여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3. 학교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학교발전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4. 이사장은 '노조에서는 차기 이사진수 구성에 있어 설립자측이 참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렇지만 몇 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정선(본회의 1이사회)에 따르면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교육부장관과 실무국장 면담을 통해 와태가 정이사체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사회의 체제(정이사체나 관산이사체)에 대한 결정은 교육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월 중순경에 (차기 이사진의 명단이) 발표될 것 같다'며, 이는 관산이사 체제의 여타 대학과 같은 시기에 발표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용인캠퍼스 도서관 건립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지부장의 질문에 이사장은 '학기 안으로 완공되도록 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최근 학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사장 보수 공개문제에 대하여도 조만간 학내 구성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5. 아직까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 이사진의 입장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 교수협의회의 대의원회 - 회 장 송경숙(아랍어)교수

1. "교수협의회의 제4차 평의회의 결과 보고"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차기 재단은 「金氏 東園」이 재단 운영을 책임지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국의 많은 사립대학의 고질적 병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대학을 사유화하여 재만 학교운영을 전횡함으로써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것에 있다. 99년 구재단과의 투쟁은 본교 구성원들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향후 와태발전 또한 99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9월 24일 개최되었던 교수협의회의 제4차 평의회에서 차기 재단 이사진수 구성에 「金氏 東園」이 재단 운영을 책임지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의회의 다수 의견으로 확인되었던 바, 이는 회원교수님들의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양 배움터 총회, 직원노조 등 다른 구성원과는 면담한 사실이 없다.

3. 본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본교의 진정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소의를 버리고 대의를 구하는 정신으로 각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4. 이사장과의 면담은 차기 재단 이사진수 구성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변형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11월 8일 오후 3시 30분 본교 이사장실에서, 송경숙 교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4명 전원이 참석할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차기 재단은 「金氏 東園」이 재단 운영을 책임지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교수협의회의 제4차 평의회의 결과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본교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변형은 차기 이사장에 요청하였다.

5. 회원교수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교 발전에 대한 의지와 역할이 분명한 재단 이사진의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신생활문화운동 - 음식문화

학우들을 문화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것, 내가 문화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생활문화운동의 목표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문화분과

# 오늘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 ○○대학교 박군의 식사고민



어쩌서 우리나라 국민성에 '조급증'이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더 빠른 것, 더 편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기본이 되는 김치, 고추장, 된장은 정성과 오랜시간의 노력, 인내가 만들어 낸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민족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기전에! 햄버거보다 정성이 갖든 우리에게 음식 한그릇! 어때요?



# 새활문화

분석·서울배움터 동아리 실태

## 놀고있는 동아리방 모자르는 동아리방

###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실태조사 벌여

현재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에서는 각 동아리 대표자를 상대로 '동아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일부 동아리가 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 조사는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한 동아리의 실태와 동아리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최근 각 동아리들간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 실태조사'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활동이 미미한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고 동아리방이 없는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하(장동우·바트뉴스 98)장은 "우리 학교의 맛과 동아리는 활동이 부진하고 동아리방을 얻지 못한 곳도 있다"며 이번 조사의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또, "보통, 활동이 활발함에도 동아리방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큰 장애를 받고 있는 동아리도 있다"며 이는 '실감'한 문제라며 고민을 밝혔다. 동연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는 모두 78개이다. 이들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가질 권한을 갖

는데, 인준을 받았으나 동아리방이 없는 동아리가 57개에 이른다. 그 중 하나인 합합동아리 흡스도비(HUPS DOVY) 회장 서상형(상경계열 01)군은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교실을 사용하는데 그나마 좋게나기 일쑤고 모일 곳이 마땅치 않아 학생들로, 회원수가 동아리 인준식 기준인 10명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이 평가 기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어느 동아리에 대해, 몇 명 이상

의 동아리 대표자의 조사 요청이 있을 때에 운영위원회의 조사를 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해당 동아리는 직계는 결코 크지는 않은 동아리방을 내놓거나 비흡스도비까지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동아리방 사용된다. 최근 1년간 활동자료, 회원수가 동아리 인준식 기준인 10명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이 평가 기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어느 동아리에 대해, 몇 명 이상

이에 대해 어떤 동아리의 회장 아무개씨는 "우리학교가 타대에 비해 동아리 수가 많고 중복되는 동아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회원수를 이번 조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감이다"며, "어떤 동아리든지 1, 2년의 공백기간은 생기기 마련이다. 또, 동아리는 재학생의 공간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공간도 하나"며 이번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동연회장의 "동아리의 행사가 매년 똑같은 행사로 일관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비가 넘쳐나지 않아 새로운 일을 기획하려 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쁨동아리를 준비하고 있는 김현식(법·법과 97)군은 "동연의 실태조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잘 운영되지 않는 동아리를 정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합합동아리 흡스도비(HUPS DOVY) 회장 서상형군도 "활동량이 더 높은 동아리에 더 동아리방을 제공해 활동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의 조사는 오는 13일(화)과 14일(수)에 있을 두 차례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논의 될 전망이다. 이번 동연의 실태조사에 동아리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정우 기자 tngyu@hanmail.net

만나보기·대학생이 만난 우리시대 문화의 인력 감독

## "무조건 남 닮으려는 세계화 필요없다"



'서른세, 총합' 등에서 '취학선'까지 한국적 소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를 통해 나타내는 삶의 모습 중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다. 한국 사람이 서양의 영화를 만드는 것만 훑어보면 이유 이상의 이도 저도 아닌 작품을 만들 위험이 있다. 내 영화는 한국 사람이 아니게 만들 수 없다. 할리우드에서 총합만 만들면 그게 재대로구나.

'취학선'에서 일년에 벌리 알려지지 못한 장수업을 소재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수업은 조선 시대 가장 뛰어난 화가로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그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다. 주위에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갖가지 작품을 일삼는 율미이지만 정경화나 풍속화가 서민들에게 인기 가 없었던 조선 말기. 이를 뛰어넘기 위해 도전한 사람이 바로 장수업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너무 모르고 싶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와 제일 가까운 장수업을 영화로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다 생각했다.

'조폭 미누라'와 같은 영화의 작품성보다 대중

성에 호소하는 이른바 돈되는 영화들이 뜨고 있는 최근 한국영화의 모습에 대해 한 미디어 전문가는 "사람들이 가벼운 영화들에 열광하는 것들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흥행 여부도 영화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한 사회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흥행하는 영화들이 관객에게 무엇을 줄지 의문이다. 하지만 생각이 없는 이러한 영화들은 손이져 나올수록 결국 그 한계에 다다르게 마련이다. 이런 영화들이 우리 민중의 정서와 삶이 묻어나는 영화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구적인 문화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요즘 대학생들은 동양화, 한국화는 어떤 예술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선조들의 예술에 대해 통해 과연 그들은 어떤 이상을 가졌는지 대해 고민을 하겠으면 한다.

에서 북한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이 남한보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유산이 아직까지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 것을 너무 모르고 이에 그 관조조차 놓아버린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것을 지키려는 의지 하나는 참 좋은 것 같다.

한국적인 소재와 민족영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으로서 민족문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바라고 생각하는지 민족의 본질을 잊은 채 무조건 남과 닮으려는 세계화는 필요 없다.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빛깔을 찾아야 한다.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 것을 알고 다른 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민족 문화의 발전이고 진정한 세계화가 아닐까 한다. 영화 취학선이 우리 동양화, 한국화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 민족문화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전대기전 문화분과 서울지역 공동기자단

## 반

뜻다 - (24)

발목공들이 뽀뽀투투할 때에 이어붙여 때를 뚫다(만들다) 이등호는 우물쭈물과 시든을 뚫었다(뚫었다).

뜻다 → ① 여러 개를 한데 붙이거나 이어서 어떤 줄기를 만들다. ②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꼭, 꺾기. 조직체 등을 만들다. ③ (일부 명사들과 함께 쓰여) 그 명사가 나타내는 관계를 뚫다

서른세, 총합, 태극선맥 등 역사적인 혹은 한국적인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로 유명한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을 만났다. 현재 촬영중인 '취학선'은 조선말기 신윤복, 김홍도의 대화가 3대 화가로 불렸지만 신분의 차이 등으로 빛을 보지 못한 천재화가 장수업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조폭 미누라'와 같은 영화의 작품성보다 대중

남북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

새활문화



**소크라테스 카페**

과거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아테네 철학자들은 철학적 문답을 주고 받으며 삶의 모든 것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보다 질문 그 자체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질문 그 자체가 답인 경우도 많았다. 저자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소크라테스적 감수성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하는 소크라테스 카페에는 나이 많은 비즈니스맨부터 학생, 젊은, 교수, 교사, 정경이, 주부, 심지어 노숙자까지 각각각각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인 철학적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 답하기 위해 모인다. 이 책은 이처럼 광범한 사람들의 삶에 녹아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필립스 저  
안시열 역 / 김영사  
장가 10,900원



**천송의 나라**

장수업 / 우리거래  
각 권 7,500원



**인터넷**  
Hufs

http://digital.hufs.ac.kr

**서예 시대의 편지**

**11월 - 한국 영화, 시대의 창**

(바람불어 좋은 날 - 이정호 1980)

- 때 : 11월 15일(목) 늦은 5시 반
- 곳 : 6104

서울에서 돈 벌어 잘 살아보겠다고 무작정 실경한 덕배(안성기), 길남(김성환), 춘식(이영호), 바람부는 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초라한 이들의 슬픔과 희망을 그린 사실주의 영화.

(낮은 목소리 3부작 - 변영주 1995.97.99)

- 때 : 11월 22일(목)
- 낮은 목소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늦은 1시
- 낮은 목소리2: 낮은 3시
- '슬픔' - 늦은 5시 반
- 곳 : 6104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과 권력에 의해 희생된 공동의 경험을 가진 중년 위약군 한배녀들의 과거의 기억과 고통, 현재의 삶과 희망을 기록한 독립영화.



기화·외대의 학풍을 찾는다 ② 학내 각종 연구소 현황과 지원정책

## 학단협 연합 심포지움 열려

진보적 학계의 최대조직이라 할 학술단체협의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연합심포지움이 이번 '영화와 통일'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화두로 지난 11월 23일(토) 양양인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다.

11세기 동북아·한반도 정세 전망과 평화·통일문제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철만 정치, 외교, 경제, 사회운동, 이념, 북한문제 등 다방면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와 토론을 맡은 학자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속히 진행되었던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르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11세기 동북아·한반도 정세-각국의 정책 추세의 부분토론에서 이철만 교수는 "미국과 인화주의적 행동과 중립주의 정책이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 국제평화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환몽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비밀한 삼각관대협정체제'를 구축·강화하려는 정책은 패권으로 통일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전쟁을 야기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경제협력에 대한 토론에서는 실질적 동북아·남북 경제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각국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호(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경험의 정경력과 효율성이 없으면서 남북관계의 정치적 긴장완화가 경험에서도 중요한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박진도 교수(송남대학교)는 "결국 현재는 노동력 있는 이남의 자본과 북한의 외국의 결합이라는 정황은 이북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기본이지 않느냐? 자본만이 강조되는 정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며 긴장완화 자체가 최대의 경제협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에 북한경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선군정치의 개념과 김정일 시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근식씨(이태원문화재단)는 "1998년 이전의 대외정책은 진행·명분 외교였다 이후에는 생존외교에서 정방위외교·경제협력외교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규약을 위한 노골적인 적대정책에서 벗어나 상호인정과 대화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대기련 공동기재단

# 연구 안하는 연구소 '절반 넘는다'

우리학교에는 총 25개의 크고 작은 연구소들이 존재한다. 분야별로 나누면 인문학·지역학 관련 연구소가 11개, 공학계열이 3개, 경제 관련 연구소가 2개, 사회과학계열 2개, 기타분야가 7개다. 하지만 이들 연구소 중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은 대다수 개에 불과하다. 이뿐만 말고는 실제 활동이 없는 연구소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인문학 관련 연구소 조고 수준. "학술지 발간도 지난해 한번 이후 없었을 뿐. 소장년도 거의 들르지 않는다"고 고집한다.

학내 연구소들은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실험실과 접목시킬 수 있는 실험을 생성, 발전시키고자 각 대학들이 대다수 개부터 열개는 삼십여개 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했듯 우리학교의 경우 학부의 근거지가 되어야 할 연구소가 현재 제 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무얼일까? 지금까지 우리학교 연구소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차근차근 짚어보자.

첫째, 비숙련 계열의 연구소를 통합하고 특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비슷한 규모의 대학인 단국대 15개, 공과대 6개에 비하면 우리 학교 연구소 숫자는 지나치게 많다.

이는 각 인문학계열 연구소를 개설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소 수는 많은 데 비해 인력이나 연구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형식적'을 면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공통점을 품어 통합할 하는 방식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목



우리학교 철학과 학생들에게 이기상(철학)교수는 '늘 행복을 입고 다니는 무서운 교수님'으로 통한다.

기자가 만난 날 역시 늦숙한 미소까지 얼은 연두색의 생활안복을 걸친 채 치렁치렁하고 온 것은 "생일이 곧 학문 아닌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얻는 게 곧 우리 학문 아닌가?"며 늘 행복을 고집하는 이유를 전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추구하는 학문의 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정체성을 가진 우리 철학자가 가 바로 그것."

지난달 27일(토)에는 그러한 뜻에 통하는 문화·종교·예술·학계 인사 200여명이 모여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회장: 이기상) 발기

소리가 높다. 실제로 외국학계연구센터는 이런 통합방식을 통해 지난 10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선정, 2년간 2억을 지원 받게 됐다.

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처럼 '외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성화된 연구소 정체가 필요하다.

이런 특성화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외국문학연구소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전임연구원들의 확보로 해외문학 연구부문의 독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97년 학술진흥재단지원 대학부설중점연구소로 선정된 이래 '문학의 세계화 과정' '민족문화와 민족국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둘째, 연구소에 관한 구체적인 '입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연구소에는 매 학기당 기본 지원금 225만원, 국제학술대회 개최시 100만원(회차제한 없음), 학술지 2회 이상 발간시 200만원 지원(1회에 한함) 등의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들이 단지 연구소 유지비로 쓰여지는 것도 대다수 곳이다. 이에 교내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원들의 △연수소 운영의 적정성 △학술대회, 학술지 발행 등 연구소 활동내역 △외부 연구수주 내역 △합리적인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연구소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협력처 신승철 주임은 "올해는 사법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확장에 반영되게 할 예정"이라고

## 민노사가 '우리말로 학문하기' 회장 이기상(철학)교수

### "나의 삶이 곧 학문이어야 해"

인 대회를 열었다. 허용 한글학회 이사장, 이승환(고려대) 교수, 오기 오세영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 모임의 결성처지는 '외국의 이론이 난무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우리 학문의 전통과 현재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학문이란 달마에 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의 지형에 맞는 자생적 이론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고려지 못했지. 예를 들어 신문의 문화비평이란 바

도 그래, 우리 문화정책을 해석하려 할 때도 리다. 들르자 같은 외국 사상의 이론을 빌려오

"가장 위대한 사상은 시대가 가장 흔쾌할 때 나타난다. 현재 우리가 세계를 내세울만한 사상이 있나? 한국의 지난 세기 분단, 발전 등 세계모순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자기 시대를 바꾸기 위한 이론들이 터져나왔어야 옳은



고 전한다. 셋째는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장부차원에서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학교 외부연구비 수주 내역 순위를 살펴 보면 이태원문화재단도 정보공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가 활동한 차이를 1.2배를 차지하고 있다. 또, 11개 연구소는 수주 건수가 1건에 머무르는 정도다. 여타 연구소들의 연구부진도 원인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학문상의 특성이 존재한다. 신기술개발이 빠르고, 응용도가 높은 이·공계열 연구소들은 기업과 연계해 연

구비 조달이 손쉽다. 이에 비해 인문학과 분야는 몇 개월 사이에 성과를 얻기 힘들 때마다 국가정책이 이·공계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부지원이 힘든 상태다. 예를 들어 인문학계열 사전 편찬에 2년~5년거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지원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듯 우리학교 연구소 정책은 특성화 노력과 연구원들의 분발, 체계적인 평가가 시급하다.

모임에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 비판의식을 고스란히 안고 출발하는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오는 12월 집담회와 내년 4월 학술지 '사이' 발간 등을 계획 중이다. 이중 '집담회'는 각계의 지식인 2,300여명이 모여 학계의 문제점에 대한 짧은 주제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분과화되어 부분만을 강조하고 전체의 문제를 보지 못하지. 집담회는 영역을 넘나드는 대화 속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문(學問)을 좋아하면 배우고 묻는다"는 뜻이 이의 일방적인 배움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일하기는 상호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언어로 학문을 지칭하는 사이언스(science)는 정보나 지식, 기술과 상통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치론, 사상의 학문에 대한 정의부터 다뤄진다. 사상이론이 그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었"이라고 위대한 학문의 전통을 부각했다.

이러한 현실 비판의식을 고스란히 안고 출발하는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오는 12월 집담회와 내년 4월 학술지 '사이' 발간 등을 계획 중이다. 이중 '집담회'는 각계의 지식인 2,300여명이 모여 학계의 문제점에 대한 짧은 주제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우리말로 학문하기'라는 언어 혁명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전한다. 각종 언론이나 학계에서 두드러질만큼 이

어려웠을 이루어졌다. 이처럼 언어는 그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대단한 1990년대 정경희 독일 철학의 식민지인 연 프롤레타르 이후 자국 언어에 대한 정체성 확립으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사상의 원류를 개척했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말로 학문하기'라는 언어 혁명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전한다. 각종 언론이나 학계에서 두드러질만큼 이

정서운 기자 oedae9@hanmail.net

### 대통령이 바뀌었나?

○... 개시관에 오른 이회창 총재 비방글을 다른 개시관에 옮겼다는 이유로 우리 학교 신배이기도 한 '디지탈 펄' 웹마스터가 허위 사실 유포죄로 구속됐다고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벌써 대통령이 바뀌었다' (호)

○... 어느덧 쌀밭엔 배움터를 뜨겁게 달구주는 대학 내 가을 등대리공인. 언제부터인가 학생에게 외면 받는 크로니클자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명쾌한 제안이다 '화요일이 바뀌면 무슨 학생들! 그렇지만, 학교는 학내공인 학생들을 위해 좋은 관망 학점제를 실시하라!' (호)

### 수필

○... 넘버는 수능 난이도도 많은 수험생들이 기습을 쳤다. 심지어 어느 학생은 교육부를 폭파해 버렸다고 하는데... 이에 크로니클자 직(作) '일치리러리러' 교육정책 바꾸기 대대시작. 곧 개봉! (우)

### 탄저군보다 무서운 것

○... 외대때 이후 또 다시 전 세계사범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탄저군. 그렇지만 세계 여러나라들은 '국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탄저군인체도, 외국인에 대한 노동권 제한법, 경찰에 의한 개인수색 등 각종 '안보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다던...

이제 우리 크로니클자 크개 발은 것이 있어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저군이 아니고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자들의 '자유에 대한 테러구나!' (호)

# 비둘기철판

• '그림사랑'에서 12월(월)부터 16일(금)까지 전시회를 연다. 장소는 학생회관 1층 전시실이다. 꼭 한 번 구경오세요! (그림사랑)

• 12번째 외대기다 정기 대공연 「PROPOSE」 토키타 동이리 '외대기다'에서 그동안 길고 닳아 온 연구실력을 보여드립니다. - 때: 14일(수) 늦은 6시 - 곳: 자연대강당 (외대기다)

○구합니다  
• 부자생 (남) 구합니다. - 기간: 방학전까지 (월~금), 오전 11시~오후 6시 - 주소: 시간당 3000원, 점심제공 - 문의: 구내전화 4821 (구내서점)

○감사합니다  
• 저는 단국대(한문교육 4)에 다니는 고등군입니다. 1월(목)경 외대에 들렀다가 공대 4층 사승 화강실에 지강을 두고 왔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산실 직원분이 보 관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다. 그 직원분께 점료수 한 잔함에 대담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미연 이)

이문벌  
○구합니다  
• 부천고 & 부천여고 동문회가 있습니다. - 때: 11월 14일 늦은 6시 - 곳: 도서관 옆 노인정 - 회비: 00이성 10000+\*, 01은 5000+\* - 연락처: 011-9941-1469 특히 선배님들 많이 오세요. (부천고 & 부천여고 동문회장)

• '노래 노래' 신입부원 모집 아름다운 노래와 다양한 사람들! 정겨운 술 한잔이 여러분의 기다립니다. 노천호처럼 바로 달려오세요. - 연락처: 961-4589 www.freechal.com/xnennare (노래 노래)

• '아생마'에서 새로운 미만을 찾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경험인이시라면 주저 말고 전화주세요.(1학년도 환영합니다") - 연락처: 011-771-5372 (아생마)

○축하합니다  
• 고전기타반 '취현'이 제 25회 전라대학생 음악경연대회 합주부문에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타를 사랑하는 이)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361-4183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1)330-4112

르포 - 인헌형 국철 동승 취재기

# “근무하다 죽은사람 올해만 열여섯이야”



서울백열리 학생들이 매달같이 이용하는 의대역의 한국철도 선하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았을 동강-도착한 전철을 잡으려 허겁지겁 계단을 내려오는 자신을 차창이 보이고 있다가도 몇 때까지 기다려주어 가카스로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번 의대역에서는 직접 인헌형 전철의 차장석에 동승하여 철도노동자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최근 정부의 구조개혁, 인명화 방침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한진자

“이 열차는 인헌, 인헌형 열차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9월(금) 오후, 상봉열차를 떠나면서 무전기를 통해 승객들에게 일리는 박관섭(가명)차장의 목소리는 전철일만 1년 동안 해 온 사람답게 동요가 없는 차분한 어조였다.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은 없었지, 출입문에 옷이 낀 사람은 없었지 등을 계속 확인하다 열차가 역을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서야 그는 열차를 차양 안으로 돌려놓았다.

제일 앞 차량에서 출입문 개폐, 비상사태 처리 등의 일을 한다. 80년에 입사, 21년째 철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는 취재 도중 역의 도착 방향에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계속 움직였다. 철 새 없이 움직이는 그에게 있어 차장석에 있는 것이란 자는 거주장소를 뜻했다.

“오늘은 오후 1시에 출근했어. 할 일을 확인하고 바로 전철이 타지. 밤 11시에 퇴근인데 내일 새벽 6시 반 근무시간에 맞추려면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해. 하루 12시간 근무인 셈이야” 처음 입사해서 힘들었던 점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에 자기 생활주기를 맞추는 일이었다고 한다. 처음 발령받은 서울역에서는 수송업을 맡았는데 다른 열차로 옮겨 타다가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젠 아예 열차도 운전도 맡고 있다.

차장석은 여러 계기판들과 조작버튼들로 복잡했다. 모터는 운전상태와 다음 역, 도착시간과 난관상태 등을 글자와 그림으로 시각각 보여주고 있다.

지하철 구간으로 들어가 청량리역에 도착하

자 박씨는 갑자기 얼굴을 찡푸린다.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가라앉아 있다가 진동이 들어오면서 날아올라기 때문이다. “나는 위에서 계속 얼굴을 내밀고 있으니 바람을 통해 석면가루를 온몸 다 마시는 셈이래고. 이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계속 맡고만 있을 수도 없고 말야”

그때도 정씨는 “이전 원도 없어 아야”라며 경부선, 호남선 같은 본선(本線)에서 일했을 때는 지못할만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고 한다. 취재요청을 위해 같이 동승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부 문화부장 조종원(28)씨가 거른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장년직을 ‘제대’라고 불리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도. 정년퇴직후 3년 안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일하는 사람 중 위장병 하나쯤은 기본인 걸요”

박씨는 이번엔 첫 직전으로 선출된 민주노조에 대해 기대가 크다. “사실 그 동안은 간선으로 뻗힌 ‘어용노조’였어. 실제 노동자들의 입장과 어긋났던 경우가 많았어. 이번 노조는 조합원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고 많은 것이 반영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노조가 요구하는 3대 사항 중 하나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자신이 21년째 일하지만 자신을 뒷받침해주시는 박차장 말을 듣고 있다. “(근로조건이) 서울지하철 공사 수준만 봤으면 좋겠다”며 그는 유종의 출입문 개폐버튼을 누른다.

열차는 어느덧 구로역에 도착하고 박씨는 기다리고 있던 승원호(가명) 차장과 교대했다. 9년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얘기를 꺼내자 승

은 “어휴, 엄청나게 짊었어”라며 혀를 내두른다. 7천명이 넘는 인원 감축의 결과로 노동자들 한명 한명이 맡는 일의 업무량은 훨씬 더 많아지고 사고도 속출한다고. “올해만 16명이 작업중 사고로 죽었어. 우리는 죽거나 다쳐도 산업보상도 잘 못 받아” 그들은 법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적용된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도 그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노동약법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민영화에 대해서 그는 “당연히 적극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을 보려고. 민영화 시켜봤더니 사고만 많이 나고 요금도 높아져서 대대 높이지 결국 다시 국영화됐잖아. (민영화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야” 그는 얼마전 노조 차장의 연구결과 조사결과 민영화화시 수입 금액이 현재의 3배로 오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 “공공성을 시장의 논리로 짓밟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충격적인 인헌형에 도착했다. 3시간 정도의 운행시간이 지나고 차장석에 내리니 이미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다.

헤어지기 전,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물으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하소연하듯 말했다. “노조 차 세우기 싫어. 승객들에게 욕먹고... 얼마나 짜증나? 하지만 이미 죽으니 저리 죽으니 마냥 가지라. 파업 할 수밖에 없지. 철도 민영화는 모든 것을 뒷걸음질 치게 할 거야”

## 한국철도 노동자들의 근로현황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	이집트	프랑스	철도노동자 (주요업종대상)	철도노동자 (일반업종대상)
55.1 (시간)	54.1 (시간)	53.4 (시간)	53.3 (시간)	52.9 (시간)	40.2 (시간)	62 (시간)	75 (시간)

《세계노동자들과 한국철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동일본철도	한국철도
노동시간	월평균 182.5 (시간)	월평균 183 (시간)	월평균 155.5 (시간)	월평균 270 (시간)
휴일	72일 (승무원6일)	64일	115일	전체의 34%인 일근로 내역지 60%노동자는 공휴일만 휴일이 단 하루도 없음

《수도노동자 휴일 및 노동시간 비교》

	'96	'97	'98	'99	'00	01.9월까지
감축인원	940	1,236	1,370	1,156	1,054	1,551
직무사망자수	14	15	11	10	8	14

《최근 6년간 철도 감축인원과 직무사망자 통계》

\* 자료제공 : 전국철도노동조합



민노보기 - 민영화 추진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부본부 위원장 이병은씨

## 민영화는 국가적 재앙... 끝까지 저지할 것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정부가 각각 지난 4월과 7월 입법을 예고한 철도 민영화 관계법이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한국철도의 운영부본이 시장성을 확보하는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민영화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부본부 위원장 이병은(41)씨를 만나 보았다.

한진자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이따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김대중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97년부터 현재까지 7천명이 넘는 철도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방안이 확정되면 서부터 본격적으로 민영화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를 통과, 현재 법제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 정기 국회 상임위에 입법 시정되면 철도 민영화는 사실상 확정된다.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떠한가  
추진되는 민영화 방침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의 성격으로 운영해야 할 철도를 영리화 최우선시 하는 시장논리로 다루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한국철도가 민영화되기 때문에 민영

회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철도는 적자자 아니다. 철도운영은 공공목적성을 띠기 때문에 시간제비 같은 적자노선 운영, 노약자를 위한 무임승차, 무료의 60% 요금 책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긴다. 국유철도특별법에는 그렇게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공공철도운영보상금제도(FSO)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95년부터 지급한 FSO보상액은 받아야 할 보상액의 20%에 그친다. 95년부터 99년까지 미보상액만 8,150여억원인데 이는 같은기간 철도청 당기순이익 총액 8,116억원에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보상금 제대로 해주었다면 37억 원의 흑자가 된다는 얘기도. 해리워야 보상을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간파한 정부의 적자 논리는 옳지 않다.

민영화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

모든 철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며 보다 강도 높은 인헌감축의 실시, 근로조건이 더욱

나빠지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지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시점논리에 따른 경영으로 적자노선 폐지, 요금상승 등 사용자들에게도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며 민영화되었다가 최근 다시 국영화로 바뀐 영국철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발생도 속출할 것이다. 철도라는 거대한 산업을 국가기업이 맡을 역량이 없으므로 외국 자본이 투입될 것이며, 남북교류가 추진될 경우 대륙철도철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을 생각해 볼 때, 막대한 국비유출이 예상된다.

민영화 저지에 관한 노조의 활동계획은 어떠한가

구준회 민영화 반대 집회와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달 2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국가기간산업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의 성격이 철도가 민영화된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며 노조는 모든 힘을 다해 그 재앙을 막을 것이다.

양한도 기자 hufshan@hanmail.net

## 그·림·타·레 <21>

정현도 기자



# 힘찬 청년의 도전!

## 그 비상의 날개를 펴자!

HUFS 응원단에서는 2002년을 이끌어갈  
때기있고 열정있는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남·여 00명(10학번)  
▶모집장소 : 학생회관 지하층 B10호  
▶모집날짜 : 11월말까지 (방문전 사전 연락요함)  
▶연락처 : 016-687-3873(단장)  
016-298-4110(부단장)  
http://hufscheer.zoa.to  
※오디션은 간단한 면접으로 대신합니다.

HUFSCHEER LEADER

# Cien Smierci - 죽음의 그림자

에지 반체츠키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떠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눈을 감고 싶을 때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떠나는 것만으로도

물리 떨어진 그녀가 내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매번 그녀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또는 너의 기쁨을 내가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이제 이 사랑에서 그녀의 존재를 보지 않아도  
아직도 살아 있는 줄을 믿고 싶어서  
아직도 그녀가 내 앞에 있었음을 믿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그녀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다

이제 이 사랑에서 그녀의 존재를 보지 않아도  
아직도 살아 있는 줄을 믿고 싶어서  
아직도 그녀가 내 앞에 있었음을 믿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그녀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다

원숭이 나무처럼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갈 때  
그런데 정작은 더욱 주춧돌처럼  
깊은 그늘에서 노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젠가 정적 속에서 자신과 홀로 마주 앉았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고  
아름답게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을

이처럼 떠나는 삶의 고통들에서 벗어나고  
그녀의 죽음을 잊게 된다  
그 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끝내는 그녀의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리라

번역 : 오영근  
(클린아트와 강사)

서평 - '털없는 원숭이'를 읽고

# '털없는 원숭이'와 떠나는 여행

가을날, 빗방울 떨어지는 무개관이나 사색  
의 한 모퉁이를 채워준 책 한 권이 있다. '동  
물의 세계'로 잘 알려진 저자 데즈먼드 모리스  
의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이다. '털없는 원숭이'  
이라는 참 이상한 제목 앞에서 가을날 떠나  
는 책 속으로의 여행을 무겁고도 무거운 인간  
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움과 가벼운 사색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털없는 원숭이'는 다름 아닌 인간(인류)  
을 지칭하는 말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100개의  
인종 및 유인원 가운데 유일하게 몸이 털이  
죽을 길지 않은 '털'을 원숭이,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하필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의소스름을 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모리스 부호를 찍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닌 동물  
학적 관점에서 쓰고 있는 인간론 책이다. 인간  
을 고상한 인간, 미적 인간, 문명적 인간으로  
연구하기보다, 하나의 생물학적 동물로 간주하  
여 그들이 어떻게 자연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사냥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고상한 욕구 갖지  
않고 먹고, 싸고, 번식하는 기본적인 요  
구를 충족시켜 가며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연구  
하며 인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동물들의 행  
동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특징을 오랫동안  
의 많은 연구와 관찰을 통하여 찾아내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기원, 쪼잔

기, 기르기, 모험심, 싸움, 먹기, 몸손질, 다른  
동물과의 관계 등의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털없는 원숭이'는 훌륭한 영장류이지만 육식  
동물의 생활양식을 채택하며 인류가 진화했다  
고 한다. 사냥하는 원숭이는 털이 없어지며 몸  
의 체온유지를 위해 탐구명과 피하 지방층이  
늘어나는 자연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한  
다. 또한 인류의 과학 기술이 환상적으로 진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류의 성적 체계가 육식  
동물의 특성과 더불어 유지되어 살아남았다고  
한다. 즉 인류의 직립 자세와 성적 행동의 변  
화의 상관성을 통해 여성의 찾기술은 단순한  
정맥이 기관이 아니라 알맞이 수컷을 유인한  
영양가가 자기모방을 거쳐 변형된 것이며, 선  
홍색 입술이나 우뚝 솟은 코는 남녀 성기의 이  
차적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숭이의 유  
인원 중에서도 털없는 원숭이는 변화하는 환경  
을 가장 잘 이용하는 기회주의적인 특성을 지  
니는 한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왕성한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이  
가 동그라미에서 초상화를 그릴 수 있으며  
울악이나 춤이나 운동과 놀이, 과학기술을 발  
견시켰다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어린이들이 인류와 유사한 열  
광 형태를 갖고 직립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포  
유류 동물들을 좋아하면서 그렇지 못한 뱀이나  
거미 등은 대부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것은 어린 시절에는 상징적으로 사람과 동등시  
할 수 있는 동물일수록 인기가 높아 어린이

는 동물을 부모의 대응물로 간주하며 나아가  
돌연사부터는 동물을 어린이 대응물로 간주하  
기 때문에 몸집이 큰 동물보다는 작은 동물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원숭이의 몸손  
질은 오늘날의 화장이나 머리 손질이나 의학  
치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아무리 현대문명이  
발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우주원숭이가 된  
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털없는  
원숭이'이라는 생물학적 규칙의 지배를 받는  
생물학적 현상들을 벗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저자의 생각에 우리는 좀 많은 사  
람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류를 모욕  
하며 약인은 열세적인 듯한 제목에 대한 거부  
감과 더불어 종교적·성적 문제를 꺼내 동물학  
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상관관계를 부인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는 이러한 책을 통하여 인류의 특징들을 재해  
석하고 인류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미  
려에 발전에 대한 비전을 더 한층 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책의 중간에는 '모험  
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속담이  
내장된 사람에게 '모험을 하지 않으면 잃는  
것도 없다'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  
자 이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지의 세  
계의 많은 동화와 여행을 충동적으로 있다.  
즉 '털없는 원숭이'로서의 가장 행복한 책읽기  
라는 즐거운 여행 말이다.  
박남용  
(외대대학원철학연구원, 중국어과)



# 이유진의 책 세상 - 3 인자의 얼굴을 한 제국주의 암흑의 핵심 Heart of Darkness

영국작가 조지프 콘래드 Joseph Conrad가 소설  
을 쓰던 1890년대는 영국주의의 세계질서  
가 다른 유럽대륙 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 도  
전 받던 열강의 각축전시대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1871년 인도 세코이의 원정대가  
같이 식민지주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역시 영  
국제국주의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  
러한 인위로부터의 위기를 맞이하여 영국  
제국주의체제는 다른 제국주의열강에게 영  
국의 우수한 식민통치능력을 강하게 주장할 필  
요가 있었으며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영  
국의 식민통치가 그들에게 정통적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주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암  
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 1899) 이상  
을 옮긴, 민중문화연구 7, 민중사, 1998에서  
콘래드가 의식하고 있는 식민체제이다.  
소설에서 영구인성상 말로는 당시 아프리카  
의 발가사 령 공에서 보았던 유럽인들의  
모습을 자신의 영국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  
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 일관하는 말로는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다. 우선  
말로는 원주민들에 대한 식민지배자들의 폭  
력에 대하여 분명히 비판적 태도를 지닌다.  
공로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프랑스군함은 원  
주민들인 '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숲을 정복하여 계속 포를 쏘았다. 말로는 공  
로에 닿았을 때 가장 먼저 본 원주민들은 쇠사  
슬로 묶인 채 홀을 나르고 있는 '범죄자들'  
이었다. 반역자들은 키츠의 집 주위에 목이  
찰린 채 기둥에 꽂혀 있었다.  
이처럼 아편적 방법으로 아프리카원주민들  
을 지배, 착취하고 있는 유럽의 식민지경  
인들에 대한 말로는 태도를 비판적이라 해  
석하는 것은 틀리지 않으나 말로는 이러한 모  
사만으로 그가 식민체제 자체를 전면으로 비  
판하는 반제국주의자라 생각하는 것은 성급  
한 일이다. 아프리카원주민들에 대하여 말로  
는 근본적으로 아편인성상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말로는 묘사는  
'역사 이전의 세계'이고 '비지 세계의 면모'  
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있는 역사 이전의 인  
간은 '우리들을 저주하고, 우리에게 기도하  
고,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한다. 말로는 아프  
리카원주민들이 백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로는 스스로가 아프  
리카원주민들에 대한 이중적 편견에 사로  
잡혀 있으면서 다른 유럽인들의 폭력을 비판하  
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가 19세기 중반  
이후의 제국주의 열강의 정략전이라는 역사,  
정치적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콘래드는 백인  
이 갖는 문명화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  
거나 망자 또는 애국하는 열등한 대륙의 제  
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셈이다. 결국 소  
설에서 콘래드가 내린 결론은 열등한 대륙의  
제국주의와는 다른 모습의 식민지배에 대한  
영국의 가능성과 당부성이다.  
문학 작품은 당대의 사회와 역사에서 자유  
롭지 않다. 콘래드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서  
양 제국주의의 역사와 그의 작품을 연관지어  
읽지 않는다면 그의 사명에 대한 적극적인 진  
술-영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 제국주의의 체제가 계속하여 세계 질서의  
중심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현실이었  
을의 도구로서 소설을 썼음이 분명한 콘래  
드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leeyujin@dreamwiz.com

사  
친구가 쓰운 다기된다. 통의점수가 몇이되고 묻는다. 나는 대답 대신 표의의 의의지고 묻는다. '음...'(환심함에 인정하는 눈치  
다) 또한 친구가 쓰운 다기된다. 나의 취적 준비가 어떻게 묻는다. 나는 대답 대신 지적중을 보인다. '음...'(부러움에 인정하는 눈치  
다) 또 친구가 쓰운 다기된다.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다. 나는 듣기조 전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막는다. '음...'(당  
황하지만 공감하는 눈치다)  
서민부

38회 외대문학상 · 18회 외대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빠지게 기다리겠습니다  
학보사에서

- 문학상  
시(3편이상) · 소설 · 수필 · 희곡 · 평론 분야
- 학술상  
인문 · 사회 · 자연과학분야 등
- 마감  
2001년 12월 31일

○ 문의  
서울 02-961-4152  
용인 031-330-4112  
e-mail: ocdarepress@hanmail.net

○ 유의사항  
심사용 · 보관용 2부씩 제출

※상금은 추후공고

민중자유언론  
외대학보